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주 하느님께서서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잘못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청합시다.

♣ 주일학교 개학일 안내

- 개학일 : 9월 20일
- 새학기를 맞이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 2026년 본당의 날 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 오는 09월 27일 (주일), 11시 미사는 본당의 날 추석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모임 / 회의

- 사목회의 : 9월 13일 (주일), 미사 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69.20€ • 교무금 200.00€

전례 성가

입당 : 19 (주를 따르리)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파견 : 286 (순교자의 믿음)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월 13일)	다음 주일(9월 20일)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1독서: 현상희 루치아
2독서: 구희선 스텔라	2독서: 윤미자 모니카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정이한 다윗	복 사: 변가인 헬레나 / 안태리 소화데레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김우진 크리스티나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9월 13일

(녹) 연중 제24주일

본기도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깨문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1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27,30-28,7)

30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는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28,1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2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3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4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5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6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7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4,7-9)
 형제 여러분, 7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9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21-35)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썴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4 임금이 썴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공동의 집을 돌보시는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살피시어, 지구 자원을 사용하며 이익만을 좇지
 않게 하시고, 피조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치유의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 주시어, 저희가 하는 주님 일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삶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Moderato

p

1. 주 에 수우-리의 희 망 우 리 의 행 복
2. 주 에 수우-리의 기쁨 우 리 의 평 화

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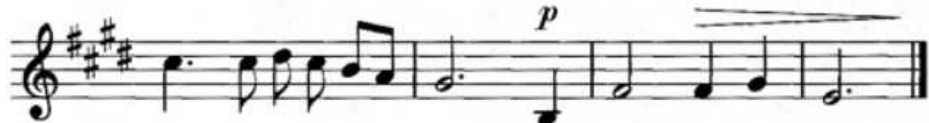
내 일생다하 여 주 님 을 사랑하- 리
내 일생다하 여 주 님 을 사랑하- 리

p

생 명의 길 밝 혀 주 시 니 주
우 리 들 의 목 자 이 시 니 주

mf

님 을 따-르- 리 십 자 가 길-로 주
님 을 따-르- 리 인 내 의 길-로 주

p

님 을 현양하- 리 사 랑 의 길 로
님 을 현양하- 리 겸 손 의 길 로

느리지 않게

노틀담 수녀회



1. 십 자 가 에 제 헌 되 신 구 원 의 주 예 수 여
2. 무 한 하 온 주 의 사 랑 우 리 기 르 시 도 다
3. 주 여 우리 기 다 리 니 우리 에 게 오 소 서



거 룩 하 온 살 과 피 를 제 물 로 바 쳤 도 다
제 사 때 에 다 시 오 사 회 생 제 물 되 시 네
주 의 몸 을 모 시 고 서 영 원 토 록 살 리 라



여 기 우리 작 은 정 성 주 대 전 에 바 치 니



너 그 러 이 받 으 소 서 미 약 하 온 이 제 물

보통 빠르기로



1. 사랑의 신비여 천사가 찬미하
2. 주님의 광채가 눈먼 인간을 비추
3. 생명의 음식이며 천사의 양식이

며며라 하늘과 땅이 다 합께 영함
주님과 성한 주의 은총

원히 찬미하도 다
이된 음식이로 다 복되어 라 주님의
엇애비기리 오

잔치 생명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

운 당신의 사랑 신비스런 복된 성사여

보통 속도로 F. Henry and J.G. Walton



1. 환난과 핍박 중애서
2. 순교자 핍옥애혀도
3. 순교자 믿음 본받아

순교로 믿음을 지켰네 이 믿음을
순양심은 믿자 유로웠네 우리자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
생리위하여 주께 생명

말과 행위로 이 믿음을 전파

하도다 순교자 믿음 본받
하치리라 순교자 믿음 본받

하리라 아아 끝까지 충성 하리라